

고혈압이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혈압 조절 양상 및 목표 장기의 손상 정도에 대한 관찰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차 란 희

단일 원인 질환으로 고혈압은 말기신부전의 17.2%의 빈도를 보이나,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을 동반하므로, 고혈압을 가진 만성콩팥병 환자는 전체 말기 신부전 환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혈압은 일중 변동을 보여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10-15% 정도 그 값이 줄어든다. 이를 야간 혈압 강하 (dipping)라고 하며, 이것이 소실되는 non-dipping은 좌심실 비대와 미세알부민뇨, 뇌혈관 질환 등의 목표 장기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 국내의 보고에서도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정상 환자에 비해 혈압의 일중 변화의 소실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는 만성콩팥병의 초기에 이미 시작된다고 밝혔다. 가면 고혈압 환자들은 체질량 지수 및 혈청 크레아티닌 치, 혈당 치, 현 흡연자의 비율이 높고, 좌심실 질량 지수가 높고 심실 벽이 두꺼웠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non-dipping 고혈압이 콩팥 기능이 없는 환자에 비해 많으며, 이는 콩팥 기능이 악화될수록 그 차이가 극명해진다. 또한, non-dipping 환자에서 콩팥 기능의 악화가 빠르고, 단백뇨 또한 심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적절한 야간 혈압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겠고, 정확한 야간 혈압 및 일중 변화의 양상을 알기 위해 24시간 활동 혈압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일반 인구에 비해 non-dipping, 가면 고혈압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심한 목표 장기의 손상과 연관되어 있고, 활동 혈압 감시는 이러한 불충분한 혈압 조절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감시를 통해 적절한 혈압 조절을 위한 임상적 인식 변화 및 치료 계획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APrODiTe 연구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국 22개 의료 기관에서 추적중인, 만성콩팥병 2-4단계인 환자 1,600명을 등록하여, 고혈압이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혈압의 조절 양상(일차 평가 변수: true controlled hypertension, sustained uncontrolled hypertension, white coat hypertension, masked hypertension/dipper, non-dipper, reverse-dipper의 비율)을 파악하고, 혈압 조절 양상에 따른 목표 장기의 손상 정도[콩팥 손상의 정도(추정 사구체여과율, 단백뇨)와 심혈관계 합병증(좌심실 비대, 병력으로 평가한 안정성 협심증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불안정 협심증, 급성 심근 경색), 허혈성 심부전]를 평가하고자 한다.